



# 수탉은 왜 '꼬끼오!' 하고 울까?

까마득히 오랜 옛날의 일입니다.

당시에 중국에는 수탉이 화려하고 멋진 공작새 꼬리와 나뭇가지처럼 뻗은 수사슴 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때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옥황상제였습니다. 옥황상제는 천하 만물과 온갖 동물들을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옥황상제는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모두 들뜬 표정이네. 자주 목욕을 하고 털도 예쁘게 다듬는걸. 그리고 보니 새해 잔치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옥황상제는 해마다 새해 아침이 밝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하늘나라 궁전으로 초대하여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루를 즐기게 했습니다.

동물들은 이 날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옥황상제가 일 년에 한 번 베푸는 하늘나라 잔치는 너무도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잔치가 열리기 한 달 전부터 들뜬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옥황상제님과 하늘나라 백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 앞에서 내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야지.’

동물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하며 잔치를 앞두고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느라 바빴습니다.

옥황상제는 숲을 내려다보다가 강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에 사는 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용은 풀이 죽은 얼굴로 강둑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쭈쭈, 용이 자기가 볼품없이 생겼다고 또 우울증에 빠져 있구나. 저 녀석은 잔칫날이 가까워 오면 늘 저렇게 생기를 잃어버리



작가 | 신현배

4201708@hanmail.net

약력

시인, 아동문학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 청주문학상, 청구문학상, 광명문학 대상 수상  
시집 <거미줄>, <매미가 벗어놓은 여름> 외 지은 책 다수

니…….’

옥황상제는 용이 안쓰러워 얼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용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 자신이 아주 못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멋진 동물들 앞에 앉아 있으면 스스로 초라하고 비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때만 해도 용은 뱀의 몸에 낙타 얼굴, 독수리 발톱, 호랑이 다리, 악마의 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머리에는 멋진 뿔도 솟아 있지 않았습니다.

용이 가장 창피하게 여기는 것은 털 한 올 돋아나지 않은 민둥머리였습니다. 용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머리를 볼 때마다 울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수사슴 뿔만 있어도 한결 근사해 보일 텐데.’

하늘나라 새해 잔치를 하루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용은 강둑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저만치에서 수탉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공작새 꼬리와 나뭇가지처럼 뻗은 수사슴 뿔을 가진 수탉은 너무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특히 용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름다운 뿔이었습니다. 용은 그 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 머리에 저 뿔을 단다면 얼마나 멋져 보일까?’

용은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 수탉에게 저 뿔을 빌리자. 뿔을 빌려 달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거야.’

용은 수탉을 불러 세웠습니다.

“수탉아, 안녕!”

“응, 용아. 잘 지냈니?”

“수탉아, 너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일 아침 하늘나라 궁전에서 새해 잔치가 열리잖아.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 머리가 민둥머리여서 보기 흉하거든. 네 뿔 좀 빌려 줘라.”

수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너만 잔치에 참석하는 게 아니잖니. 나도 뿔을 달고 새해 잔치에 가야 해.”

“수탉아, 너는 뿔이 없어도 멋져. 네게는 눈부시게 화려한 꼬리가 있잖니. 뿔이 없으면 넌 그 꼬리 때문에 더욱 멋져 보일걸.”

“글쎄, 뿔을 빌려 줄 수 없다니까.”

수탉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때 물속에 있던 잉어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잉어는 용과 수탉이 주고받는 말을 다 엿들었습니다.

“용의 말이 옳아. 수탉은 뿔이 없어야 더욱 멋지고 아름다워 보일걸. 수탉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꼬리가 있으니까.”

강에 사는 잉어는 용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용의 편을 들었습니다.

수탉은 잉어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정말? 뿔이 없으면 내가 멋지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렇다니까. 뽕 때문에 네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수탉아, 용한테 뽕을 빌려 줘. 그럼 내가 책임지고 뽕을 돌려 받을게.”

수탉은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뽕이 없어야 더욱 멋지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말에 혹해 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뽕을 빌려 주지. 하지만 꼭 하루 동안만이야. 내일 새해 잔치가 파하면 돌려줘야 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은 정확히 지키니까.”

“그래. 용이 네 뽕을 꼭 돌려 줄 거야. 혹시 용이 잊어버리면 내가 나서서 돌려받아 줄게.”

용은 뽕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잉어도 용에게서 뽕을 돌려받아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옥황상제의 초청을 받아 하늘나라 궁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용도 수탉에게 빌린 뽕을 달고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동물들은 용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용이잖아. 머리에 화려한 뽕을 달았네. 너무너무 근사해!”

“난 용이 저렇게 멋진 줄은 미처 몰랐네. 저능름한 모습 좀 봐.”

동물들뿐 아니라 옥황상제도 용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 참으로 멋지구나. 용이 나타나니 이 궁전이 달라 보여. 용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옥황상제는 용을 불러 자신의 보좌 옆에 앉혔습니다. 이제까지 하늘나라 궁전에서 수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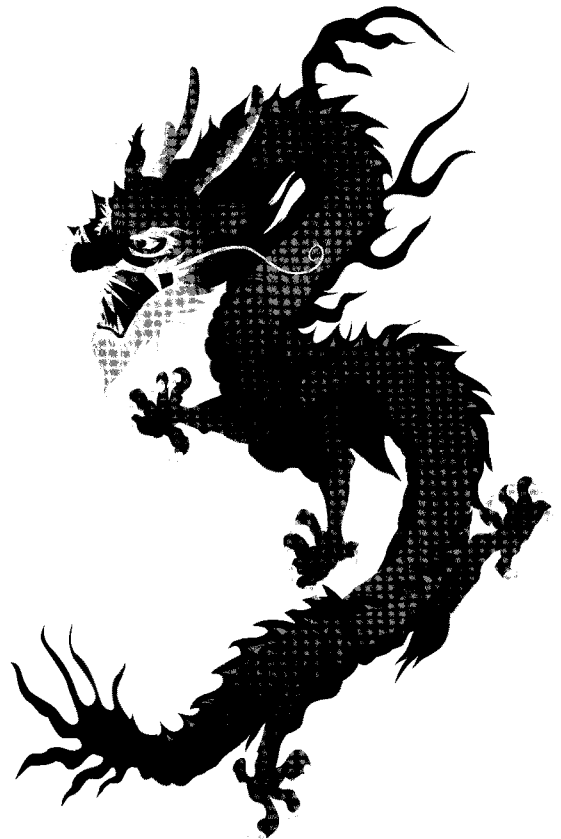
잔치가 있었지만, 옥황상제의 총애를 받아 그 옆에 앉은 동물은 용이 처음이었습니다. 참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부러움이 가득한 눈길로 용을 쳐다보았습니다. 용은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영웅이나 된 듯 거만한 눈빛으로 잔치 자리를 굽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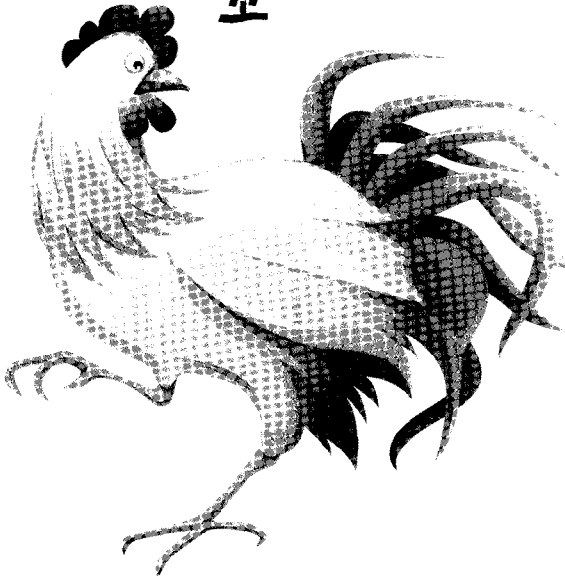
용에게 자기 뽕을 빌려 준 수탉은 매우 속상했습니다.

‘내 뽕을 공연히 용한테 빌려 줬어. 내가 뽕을 달고 왔으면 모든 동물들에게 칭찬을 받고, 옥황상제님께 귀한 대접을 받았을 텐데.’

수탉은 흥겨운 잔치 자리에서 마음이 즐겁지



꼬끼오~



않았습니다.

잔치는 밤늦게 끝났습니다. 하늘나라 궁전을 나선 동물들은 세상으로 내려가 흩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수탉은 눈뜨자마자 강으로 갔습니다. 용에게 뽕을 돌려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수탉은 강가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용아, 용아! 어서 나오너라!”

잠시 뒤, 강물이 갈라지더니 커다란 용이 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유, 꼭두새벽에 찾아와서 웬 난리니? 시끄러워서 잠이 깬잖니.”

“우리 약속 잊지 않았겠지? 내 뽕 내놔.”

“뽕? 네가 포기해라. 넌 뽕이 없어야 더 멋지고 아름답잖니. 하지만 난 달라. 뽕이 없으면 민둥머리여서 보기 흉하거든.”

“뭐라고? 뽕을 돌려주겠다고 해 놓고 그게 무슨 소리아? 이 사기꾼! 어서 뽕을 돌려줘!”

“그렇게 못하겠어. 나 졸려서 잠 좀 더 자야 하거든. 다음에 보자.”

용은 이런 말을 남기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탉은 성이 나서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내 뽕 내놔! 이 못된 용아, 남의 뽕을 가로채?”

그 때 잉어가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니?”

“너 마침 잘 왔다. 용이 내 뽕을 빌려가 놓고 돌려주지 않아. 네가 책임지고 내 뽕을 돌려받아 준다고 했지? 약속을 지켜.”

“수탉아, 네가 포기해라. 넌 뽕이 없어도 화려하지만 용은 뽕이 없으면 초라해져.”

“뭘, 어찌고 어찌? 너희들이 짜고 나를 속였구나. 내 뽕 내놔, 내 뽕!”

수탉은 목이 터져라 ‘내 뽕 내놔!’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잉어는 못 들은 척 물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수탉은 새벽마다 ‘꼬끼오!’ 하고 울부짖는데, 그것은 ‘내 뽕 내놔!’ 하고 외치는 소리랍니다. 